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신흥시장, 마이너스 금리에 유로 표시 채권 발행 사상 최대
- ◇ (초점)-日 규제 소음에도 韓 증시 외인 자금 '밀물'..추가 조치에 양상 달라질 수도
- ◇ (초점)-1.47%에 조 단위 거래된 2*5 선도 금리계약에 스왑시장 '당혹감'
- ◇ (칼럼)-한-일 갈등 악화 일로..원화 '보이지 않는 힘' 작동중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버킹엄궁을 예방한 보리스 존슨 신임 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로이터/공동취재단 빅토리아 존스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7월26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1,184.8	-0.9%	-5.8%	-4.1%	유로	1.1125	-0.8%	-3.0%	-4.4%
100엔 대비	1,088.6	0.2%	-6.7%	-6.9%	엔	108.66	-0.9%	0.8%	2.8%
유로 대비	1,316.4	0.2%	-3.0%	0.2%	위안	6.8734	0.1%	0.0%	-5.3%
위안 대비	171.99	-0.7%	-5.9%	1.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다우존스	27,192.45	0.1%	16.6%	-5.6%
코스피	2,066.26	-1.3%	1.2%	-17.3%	나스닥	8,330.21	2.3%	25.5%	-3.9%
코스닥	644.59	-4.4%	-4.6%	-15.4%	S&P500	3,025.86	1.7%	20.7%	-6.2%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MSCI APxJP	526.05	-0.7%	10.3%	-16.2%
국고채 3Y	1.308%	-1.9bp	-50.9bp	-31.8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국고채 5Y	1.346%	-1.7bp	-53.8bp	-45.9bp	미국채 2Y	1.860%	3.6bp	-63.8bp	60.7bp
국고채 10Y	1.426%	-3.0bp	-52.2bp	-52.1bp	미국채 10Y	2.074%	1.7bp	-61.7bp	28.0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8(%)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8(bp)
유가(WTI)	56.20	1.0%	23.8%	-24.8%	한국 5Y	27.92	-3.15	-10.14	-13.74
금(현물)	1,418.31	-0.5%	10.6%	-1.5%	일본 5Y	19.75	-0.15	-2.04	-3.34
TR상품지수	2,387.44	0.8%	0.7%	0.0%	중국 5Y	38.65	-2.55	-27.82	16.96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로이터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7 월 29 일(월)>

- 특이 일정 없음

<30 일(화)>

- 한은, 7 월 기업경기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 (06:00)

<31 일(수)>

- 통계청, 6 월 산업활동동향(08:00)

<8 월 1 일(목)>

- 통계청, 7 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 산업부, 7 월 수출입동향(09:00)

<2 일(금)>

- 특이 일정 없음

해외 주요 주간 일정

<7 월 29 일(월)>

-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30 일)
- 일본, 6 월 소매판매 (08:50)
- 미국, 7 월 델러스연은 제조업지수 (23:30)
- 태국 휴장

<30 일(화)>

- 일본, 6 월 실업률 (08:30)
- 일본, 6 월 산업생산 잠정치 SA (08:50)
-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 결과(오후)

- 유로존, 7 월 기업환경지수·경기체감지수·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 (18:00)
- 미국, 6 월 개인소득 (21:30)
- 미국, 5 월 케이스실러주택가격 (22:00)
- 미국, 7 월 소비자신뢰지수 (23:00)
- 미국, 6 월 잠정주택판매 (23:00)
-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31 일)

<31 일(수)>

- 중국, 7 월 NBS 제조업(비제조업) PMI (10:00)
- 일본, 7 월 소비자신뢰지수·6 월 주택착공 (14:00)
- 유로존, 7 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8:00)
- 유로존, 2 분기 GDP 잠정치 (18:00)
- 유로존, 6 월 실업률 (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7 월 ADP 전국고용동향 (21:15)
- 미국, 2 분기 고용비용 (21:30)
- 미국, 7 월 시카고 PMI (22:45)
- 일본, 6 월 건축주문 (미정)

<8 월 1 일(목)>

-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발표(03:00)
- 일본, 7 월 외환보유고 (1~8 일)
- 일본, 7 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09:30)
- 중국, 7 월 차이신 제조업 PMI (10:45)
- 유로존, 7 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 확정치 (17:00)
- 미국, 7 월 챌린저해고건수 (20: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7 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 확정치 (22:45)
- 미국, 6 월 건설지출 (23:00)
- 미국, 7 월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 (23:00)
- 유로존, 6 월 생산자물가·소매판매 (18:00)

<2 일(금)>

- 일본은행(BOJ) 6 월 19-20 일 통화정책회의 의록 발간(08:50)
- 미국, 7 월 비농업부문 고용·실업률 (21:30)
- 미국, 6 월 무역수지 (21:30)
- 미국, 7 월 공급관리자협회(ISM) 뉴욕지수 (22:45)
- 미국, 6 월 내구재주문 수정치 (23:00)
- 미국, 6 월 공장주문 (23:00)
- 미국, 7 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외환시장>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 회의를 비롯한 대형 국내외 이벤트 결과에 따라 변동성을 확대할 전망이다.
- 예상되는 주간 거래 범위는 **1170-1195** 원이다.
- 30일부터 미국과 중국은 이틀간 고위급 대면 협상을 벌인다. 협상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지만, 협상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질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이 흔들릴 여지는 있다.
- 1일(한국시간) 새벽에는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내놓는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정책금리가 **25bp** 인하될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금리 인하 폭과 9월 추가 인하 힌트에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 1일에는 7월 한국 수출입 실적이 발표된다. 8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감소폭이 관건이다.
- 한편 지난주 교도통신은 이르면 8월 2일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기 위해 내각의 승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처럼 녹록지 않은 대내외 재료들을 소화하면서 이번 주 원화는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화의 약세 변동성이 커질 여지가 더욱 더 높다.
- 물론 원화가 약세 변동성을 확대할 경우 외환당국 개입 경계수위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채권시장>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오는 30~31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연동하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지난 주말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1%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2.0%)를 소폭 상회했다. 하지만 연준이 10년 만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은 변함이 없다.
- 결국 이번 FOMC에선 연준의 연내 인하폭에 대한 기대감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스탠스가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글로벌 금리가 반등할 경우 국내 시장도 레벨 부담과 맞물리며 조정을 받을 여지가 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내달 2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앞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건이다. 한일 당국이 대화에 나서는 모습이 관측될 경우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 국내에선 주요 경제지표가 줄줄이 발표된다. 통계청은 31일에 '6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내달 1일에는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산업부는 내달 1일 '7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분석)-신흥시장, 마이너스 금리에 유로 표시 채권 발행 사상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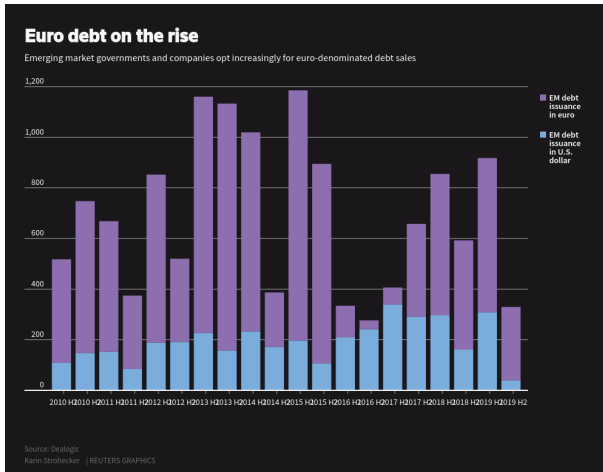
런던 (로이터) - 신흥시장 대출자들이 유럽중앙은행(ECB)의 마이너스 금리 추가 인하와 통화 완화를 기대하며 유로 표시 채권 발행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리고 있다.

JP 모간 계산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신흥시장 국가들의 유로 표시 채권 발행 규모는 7월 초까지 330억 달러에 달해 개발도상국들의 총 경화 표시 채권 발행 규모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디아로직 자료에 따르면 개발도상국과 기업들에 의한 유로 채권 발행량은 올해 현재까지 580억 달러로, 작년 총 발행량인 770억 달러에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

마르셀로 아살린 NN 투자파트너스 신흥시장 채권 담당은 "유로 표시 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ECB의 통화 완화 정책과 추가적인 부양 기대감으로 인한 매우 풍부한 유동성 조건이 이유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로 채권 시장에서는 라트비아나 리투아니아 등 유로존에 속해 있지만 신흥시장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들이나 폴란드나 체코 등 유로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주축이었다.

그러나 최근 시장에는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이집트 등 다양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세실 카밀리 중앙유럽·동유럽·중동·아프리카(CEEMEA) 채권시장 담당자는 "저금리 상황으로 투자자들이 은행 대출 대신 채권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카밀리 담당자는 "현재 달러 이외 통화 표시 채권 시장으로 향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아로직 자료에 따르면 7월 유로 표시 채권 발행량은 전체 신흥시장 기업 및 국채 발행량의 5분의 1을 차지했다. 지난 18개월 간에는 14%, 2011년에는 10%를 살짝 넘기는 수준이었다.

펀드매니저들은 토고 등의 개척자들이 유로화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하면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이에 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달러 표시 채권 대신 유로 표시 채권을 사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얀 덴 에쉬모어 그룹 신흥시장 리서치 담당자는 "유동성이 달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

자자들에게는 달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카밀리 CEEMEA 담당자는 일부 국가들은 새로운 유로 투자자들과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누가 채권을 발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초점)-日 규제 소음에도 韓 증시 외인 자금 '밀물'.. 추가 조치에 양상 달라질 수도

서울 (로이터) 박예나·박윤아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소용돌이에 더해 한국 경제가 일본 수출 규제 조치라는 새로운 역풍에 맞닥뜨리면서 경로를 이탈할 위험이 한층 더 커졌지만 서울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는 크게 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달 4일부터 적용된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로 한국 수출 비중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이전 예상보다 0.3%p 낮추면서 사실상 한-일 갈등에 따른 경보를 발령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이번에 발표한 경제 전망에 일본 수출 규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현재로선 일본 악재가 경보 수준에 그치고 실질적인 영향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 日 규제에 따른 국내 수출 영향 '아직'

지난 6월까지 7개월째 전년 대비 감소한 한국 수출은 7월 중간 성적 또한 부진했다. 반도체 부진(-30.2%) 여파 속에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나 급감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발효한 일본 수출 규제 영향은 아직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이달 20일까지 대일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 감소했는데, 이

는 6월 20일간 기록한 13.9% 감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규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양국 갈등은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악영향을 주겠지만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들의) 재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달 수출에 당장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투심 위축?

국제금융센터 자료에 따르면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적용된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아시아 주요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주식 순매수는 한국이 6억달러로 태국(3.7억달러)을 제치고 선두를 차지했다.

전기전자업종지수는 7월 중 저점 대비(22일 기준) 약 7% 올랐고, 외인 순매수 규모는 1.7조원에 이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월중 저점 대비 각각 7%와 20% 상승했다.

반도체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오히려 수급 조절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키워 관련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유진투자증권 22일 보고서에 따르면 DRAM 현물 가격(8G)은 지난 한 주간 14.6% 상승했고, 저점 대비로는 24% 상승했다. 또한 현물가격의 고정가 대비 프리미엄은 12.8%까지 올랐다.

이에 대해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물시장 노이즈는 한-일 갈등에 따른 잠재적 불확실성과 일부 투기적 수요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반도체 업체들이 하반기 회복을 전망하고, 현물시장에서도 분명 상반기와는 다른 변화들이 있다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소재 국산화를 서두르고 있어 관련 업종의 반사이익도 두드러진다. 코스피 시가총액 157위인 후성은 이달(22일 기준)에만 약 60% 급등했고, 코스닥 시총 9위인 SK머티리얼즈는 약 15%, 시총 21위인 솔브레인은 약 40% 각각 급등했다.

▲ 한-일 갈등 분수령,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한-일 양국의 갈등이 쉽게 봉합될 것이라는 전망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24일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마감하고, 이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하게 되면 8월 중순께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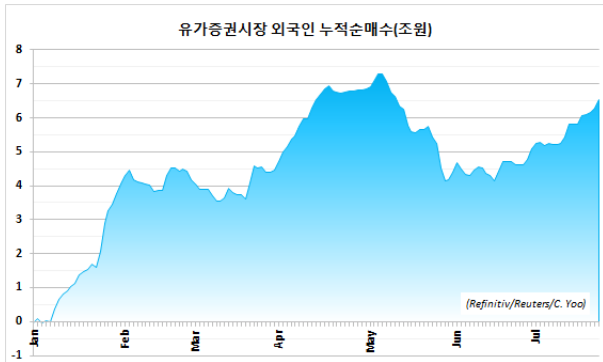
뱅크오브메릴린치아메리카(BAML)는 19일 보고서에서 단기간 내 한-일 양국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은 작다면서 전면적인 수출 금지 가능성은 작지만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돼 일본의 아시아 주요 교역 상대국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내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첨단소재, 전자, 통신 등 1100여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가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으로 간주되고 있다. 사실상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나리오는 아직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크다.

한 은행의 외환딜러는 "현재 원화 변동성이 다소 잦아들었지만 최대 변수는 한-일 갈등 확산 여부"라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하인환 메리츠증권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만 해도 지금은 재고 소진 이벤트 정도로 주가가 회복했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고 갈등이 격해지면 반도체가 생산 차질 이슈로 변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주가도 급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자동차, 배터리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영향도 피할 수 없다"면서 코스피가 연저점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초점)-1.47%에 조 단위 거래된 2*5 선도금리계약에 스왑시장 '당혹감'..8월 금리인하 기대(?)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2개월 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1.47%로 정한 FRA(Forward Rate Agreement, 선도금리계약) 거래가 대규모로 체결돼 화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상황에서 8월 인하를 염두에 둔 듯한 거래가 나왔기 때문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8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금리 인하 베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포지션에 대한 헤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5 FRA 조 단위 거래..8월 금리 인하 베팅인가

스왑시장 참가자들에 따르면 지난 24일 하루 동안 2*5 FRA가 수 조원대 규모로 체결됐다. FRA는 수요자가 은행과 계약을 통해 미래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에 적용할 금리를 미리 확정함으로써 단기 금리의 변동 위험을 헤지하는 상품이다.

2*5 FRA는 현시점에서 2개월이 지난 후부터 기산되는 3개월간의 계약 기간에 적용할 FRA를 의미한다. FRA를 매입하는 것은 변동금리를 수령하고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IRS) 거래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금리다. 이날 2*5 FRA는 1.49%부터 시작해 1.48%, 1.47%까지 거래됐다.

FRA의 참조 금리(Reference Rate)인 3개월 CD 금리는 이날 오전에 2bp 하락하며 1.57%를 기록한 후 오후 장에 1bp 추가 하락했다. 24일 종가 기준으로

3개월 CD 고시금리는 기준금리인 1.50%보다 6bp 높은 수준이다.

2*5 FRA 거래가 1.47%에 이뤄졌다는 것은 변동금리 수령자가 2개월 후 CD 금리를 1.47% 이하로 봤기 때문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스왑시장 참가자들이 당혹스러워한 것은 이 부분이다. 3개월 CD 금리가 현재 기준금리 수준인 1.50%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추가 인하가 이뤄지는 경우로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한은이 7월에 이어 8월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2*5 FRA 거래에 내재된 CD 금리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A은행의 한 스왑딜러는 "8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것 외에는 2*5 FRA 거래의 답이 안 나온다"며 "어제 외국계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리시브를 했는데 정황상 헤지펀드에서 물량을 뿌린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기존 페이 포지션 헤지에 무게..CD 금리는 추가 하락 가능성

다만 시장에서는 기존에 무거웠던 페이 포지션을 헤지하기 위해 2*5 FRA가 활용됐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7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못하고 페이를 했던 외국계 기관에서 헤지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IRS가 아닌 FRA를 선호했으리라는 분석이다.

기준금리가 8월에 추가로 인하되지 않는다고 해도 CD 금리가 현재 레벨보다 큰 폭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은 지점의 한 이자율딜러는 "외국계 기관이 8월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주문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한 달 전에 6개월 페이를 했고 그 포지션이 터졌으면 그걸 지금 헤지하려고 할 때 2*5 FRA가 픽싱 리스크 감소 측면에서 IRS보다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10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적지 않아 보인다"며 "8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는다고 해도 9월에 CD 금리가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며 먼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자금중개사의 스왑중개인은 "FRA가 1조원이라고 해도 1년 전체로 보면 2500억원"이라며 "시장에선 헤지라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지지난 주에도 비슷한 거래가 있었다"고 말했다.

(칼럼)-한-일 갈등 악화 일로..원화 '보이지 않는 힘' 작동중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정부가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하며 대응해 왔고, (환율이) 1150원대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소망스러운 결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6월 일산에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한 발언이다.

지난 5월 유독 원화가 가파른 속도로 절하폭을 키운 이후 진정된 흐름을 보인 데 대해 부총리가 무심코 한 발언이었겠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이를 넘겨들지만은 않았다.

외환당국 수장이 특정 환율 레벨을 언급한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당국이 바라는 레벨이 1150원대가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곁들여졌다.

이달 들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는 연일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이에 대해 일본은 안보 차원의 조치라고 맞서는 등 한일 양국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환당국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홍 부총리의 이같은 환율 발언이 새삼 떠오른다.

▲ 보이지 않는 힘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민국 수출 규제 조치는 원화 약세를 부추겼다. 지난 1일 1140원대였던 환율은 1주일 만에 1180원대로 속도감 있게 올랐다. 하지만 상승세는 일단락되며 그 이후 2주간 환율은 1180원대를 계속 노크하면서도 쉽게 발을 들여놓지는 못하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보이지 않는 힘이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지목되는 배후는 '외환당국'이다. 이달 초부터 당국은 시장 모니터링 수위를 높임과 동시에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원화 약세를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 참가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당국 속내를 완벽하게 읽어낼 수는 없지만 일본 규제에 따른 불안이 원화에 그대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환율은 한국 경제 위기에 대한 가능자 역할을 해왔다. 그렇다 보니 일본 수출 규제 불확실성에 노출된 원화가 나홀로 절하 압력을 대거 키울 경우 어떤 해석이 뒤따를지는 대강 예측해볼 수 있다.

외환당국은 지난 5월의 환율 급변동으로부터도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국내외 부정적 재료들이 여과 없이 환율에 반영될 때 원화 약세 변동성이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다.

이번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예상보다 한발 앞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대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라는 해석이 우세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외환당국의 행보도 읽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등 양국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금융 시장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주요 변곡점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원화가 먼저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 외환당국은 경계하는 듯하다.

외환당국자들에게 환율에 대해 질문하면 매번 똑같은 답이 돌아온다. 당국자들은 언제나 "적정 환율은 펀더멘털을 잘 반영하는 환율로 이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답한다. 그러면서 당국은 특정 레벨에 대해 의미를 두지 않지만 시장이 어떤 레벨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를 감안하지는 않을 수 없다고도 설명한다.

앞서 언급한 홍 부총리 발언을 볼 때 당국이 바라는 소망 환율(?)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원화가 절하 압력을 확대해 달러당

1200 원을 위협하며 이런저런 우려가 뒤따르는 데 대한 부담은 적지 않은 듯하다.

한-일 양국의 치열한 대치 국면으로 볼 때 일본과 상황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이 이에 대한 척도가 될 전망이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첨단소재, 전자, 통신 등 1100 여 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 스탠스를 읽어내며 일단 한발 물러서 있는 원화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본 게임이 시작된 이후에는 어떻게 돌변할지 장담할 수 없다. 시장과 당국 모두 경계 태세를 높이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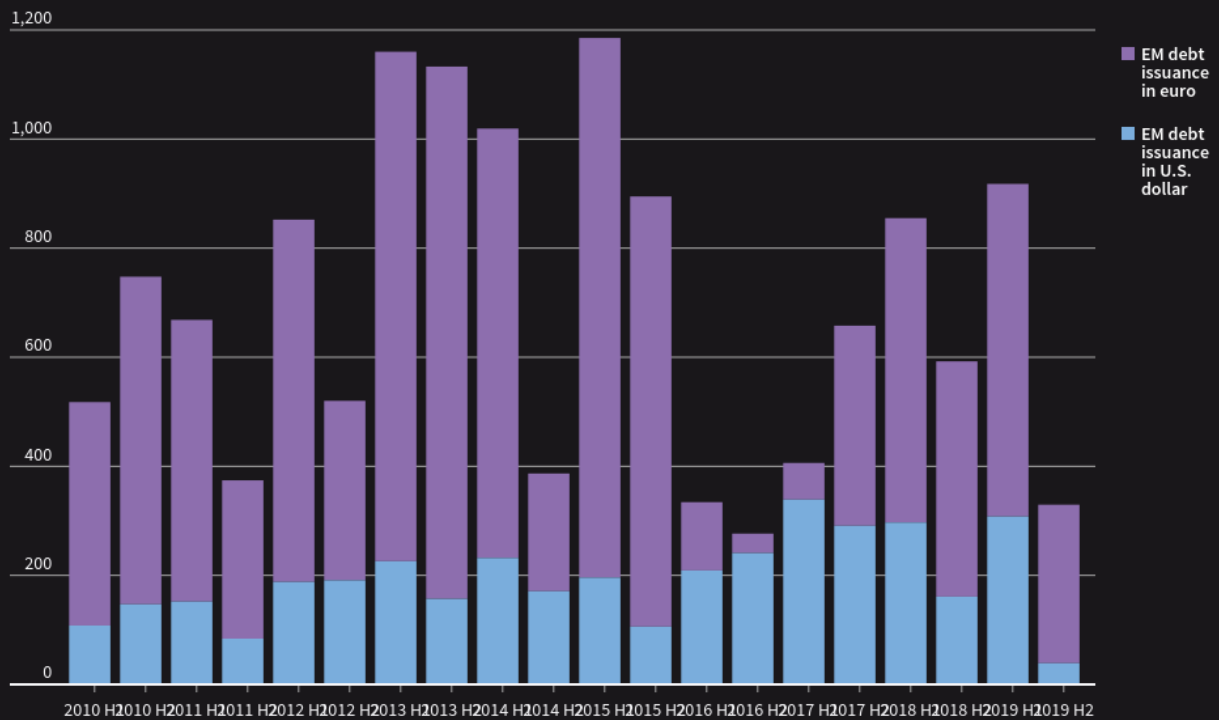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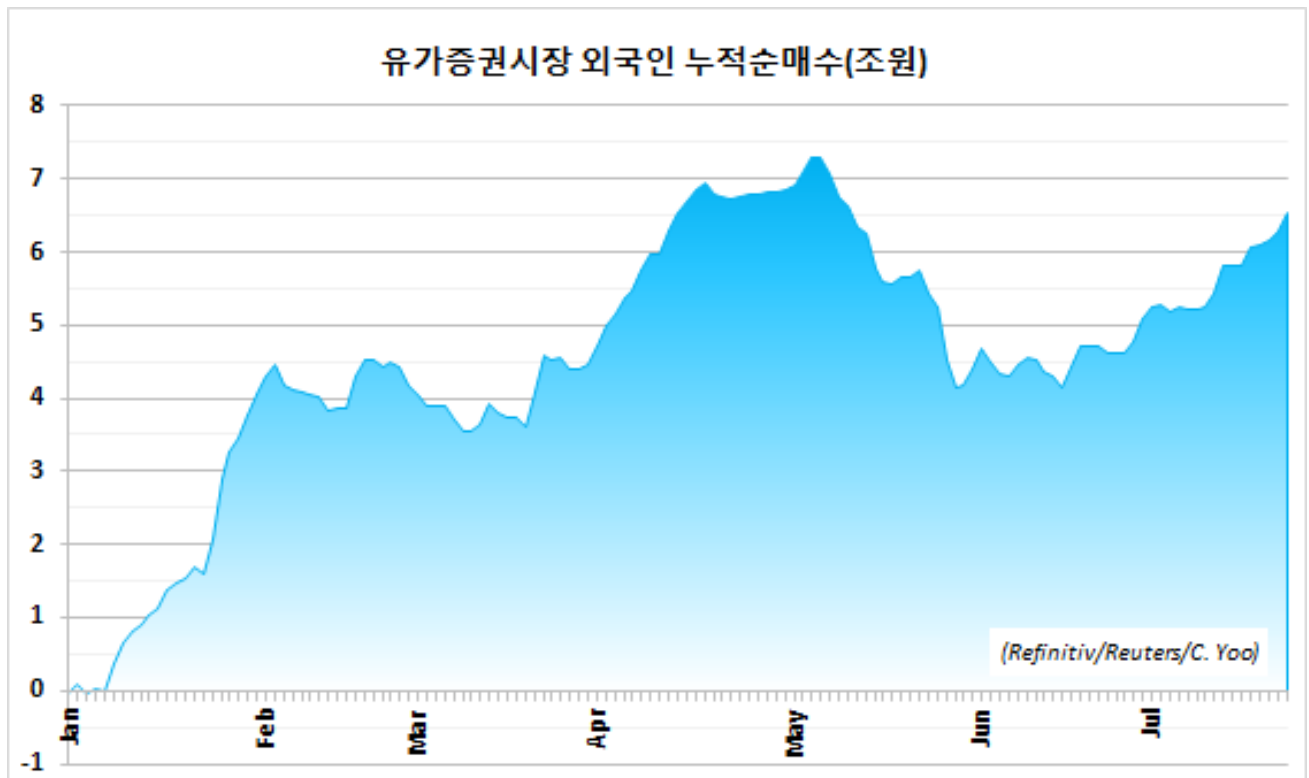
Euro debt on the rise

Emerging market governments and companies opt increasingly for euro-denominated debt sales



Source: Dealogic
Karin Strohecker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